

농구 월드컵 개막 ... 미국·스페인·독일 등 우승 경쟁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이 지난 25일 개막했다.

4년마다 열리는 농구 월드컵 올해 대회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 3개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 1950년 창설된 이후 2개국 이상이 공동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32개 나라가 출전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이며 각 조 2위까지 결선 리그에 진출, 이후로는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이번 대회 미국 대표팀은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재런 잭슨(뉴저지), 제이슨 브라운(뉴욕) 등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 필리핀의 FIBA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장식된 대회 기념 대형 농구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19년 대회에서 3연패를 노렸으나 8강에서 프랑스에 79-89로 져 7위에 머문 미국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린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올라호마시티), 켈리 올리닉(유타), 드와이트 파월(댈러스) 등이 포진한 캐나다와 루디 고베르(미네소타), 니콜라 바툼(LA 클리퍼스), 에반 푸르니에(뉴욕) 등으로 팀을 꾸린 프랑스

등이 미국의 '대항마'로 꼽힌다. 2019년 대회 우승팀이자 현 세계 랭킹 1위 스페인과 FIBA가 미국에 이어 파워 랭킹 2위로 꼽은 독일, NBA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호주 등도 정상급 팀들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 예선에 불참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주장 손흥민, 구성원들에게 감명 줘”



▲ 브렌트포드 전에 앞서 원정 팬들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 사진=tottenhamhotspur.com

한국 축구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31·토트넘)의 리더십에 찬사가 쏟아졌다.

지난 22일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옳았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했다. 개막 후 단 두 경기 만이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입단 8년 만인 이번 시즌에 처음 주장 완장을 썼다. 오랫동안 주장 완장을 썼던 위고 요리스는 최근 토트넘을 떠났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변화는 팬들이 다가서는 태도다. 앞서 손흥민은 주장 선임 소감을 밝히는 글에 토트넘을 '우리 클럽(our club)'이라 표현해 팬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어 토트넘 선수단은 지난 13일 열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직전 원정 팬들 앞에 다가 인사했다. 팬들을 열광시킨 아이디어는 손흥민에서 비롯됐다.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필요했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흥민이 보여준 상호작용과 책임감은 토트넘 구성원들에게 감명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EPL에서 한국인 주장은 손흥민이 역대 두 번째다. 앞서 박지성(현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이적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2012-2013시즌 공식적으로 주장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 최초 11회 연속 올림픽 진출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세계 핸드볼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지난 23일 일본 히로시마 마에다 하우스 동구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최종전에서 일본을 25-24로 이기며 세계 남녀 핸드볼 역사상 유일한 11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이뤄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한국은 앞선 경기들에서 인도(53-14), 중국(33-20), 카자흐스탄(45-24)을 차례대로 제압했다. 일본까지 꺾고 4경기 전승으로 1위에 올라 1위 팀에게만 주어질 올림픽 직행 티켓을 획득했다.

경기 종료 1분여를 앞두고 24-23 리드 상황에서 이날 승리에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킨 류은희는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해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과 기쁨을 같이 느낀다"며 "기록을 우리가 이



▲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대 일본 경기 승리로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

어갈 수 있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장 이미경은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이번에 이기면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열정이 더 올라갔다"면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사랑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